

60~70 대 '자동차 큰손'으로 등극



▲ 한국 60~70대의 차량 구매력이 전 연령에서 가장 크다
사진=shutterstock

올해 한국에서 60~70대가 30대보다 새 차를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문화일보'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최근 10년간 연령별 신차 등록 대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11월 60~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22만4,095대로 나타났다. 이는 30대의 등록 대수(19만5,182대)를 넘어선 수치다. 30대의 올해 월평균 신차등록 대수가 1만7,743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수치를 더하더라도 60~70대의 기록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0~70대의 신차 등록 대수가 3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 중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4년만 해도 30대가 29만2,318대를 신차로 등록하며 60~70대(13만3,723대)의 두 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 올해 60~70대는 30대를 역전했다.

60~70대의 신차 등록은 조만간 40대도 넘어설 전망이다. 4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올해 1~11월 23만9,823대로 집계돼 60~70대와 불과 1만 5,728대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구매력이 꾸준히 상승한 60~70대와 달리 30~4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본격적인 신차 등록 감소세가 시작된 2015년 대비 지난해 3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31만 6,546대에서 20만4,411대로 35%, 40대의 신차 등록 대수는 34만1,983대에서 24만9,586대로 27% 각각 감소했다.

한국 국민 52.3% "내년 소비 더 줄여"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가계소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3%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조사의 집계치(56.2%) 보다는 3.9%포인트 감소했다. 한경협은 민간 소비가 올해 큰 폭으로 둔화한 가운데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



▲ 서울지역 한 마트의 한산한 모습. 사진=newsway.co.kr

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을 축소하려는 주된 이유로는 고물가(43.5%)가 꼽혔다. 실적 우려 증가 또는 소득 감소 예상(13.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증가(10.1%), 자산소득 및 기타소득 감소(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 감소 대상으로는 여행·외식·숙박(20.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여가·문화

생활(14.9%), 의류·신발(13.7%) 등 순이었다. 부족한 소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42.2%), 예·적금 등 해지(22.2%), 주식 등 금융 자산 매도(15.4%) 등을 선택했다.

소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물가·환율 안정(43.6%), 금리 인하(16.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5.4%) 등이 제시됐다.

750만 명 '나 혼자 산다' ... 1인 가구 역대 최대

한국에서 1인 가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그 비중은 34%에 달하며 열 집 가운데 세 집은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될 만큼 인구 구조가 변화했다.

1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 2,000가구로 1년 사이 33만 6,000가구가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몫도 34.5%까지 늘었다. 2005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비중은 20% 선에 그쳤지만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뒤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지난해 한국의 1인 가구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1인 가구는 2030세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양극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세 이하 비중이 19.2%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18.6%), 30대(17.3%), 60대(16.7%)가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경제 환경은 전체 평균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열 집 중 여섯 집(61.3%)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못했고, 자산 규모는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39.7%)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54.6%는 40㎡(12.1평) 이하 크기 집에 살고 있고, 주택 소유율은 30%에 그쳤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